

同濟醫學校의 醫學史的 意義

韓醫學博士 表 天 根

<目	次>
I. 緒 論.....	2. 同濟醫學校의 設立 및 意義.....
II. 本 論.....	III. 結 論.....
1. 日帝侵略과 東洋醫學.....	

I. 緒 論

우리의 傳統文化遺産의 하나인 東洋醫學은 有史 이래 國民보건을 담당하여 왔으며, 발전을 계속하여 이제 전국의 五個大學에서 敎育을 실시하고 있는 바는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現今 西洋醫學과 比較하여 볼 때 存廢의 위기를 體感할 만큼 위축되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이다.

과거 東洋醫學 抹殺政策을 썼던 일제하에서도 綿綿이 이어온 東洋醫學이 光復後 四十年이 된 오늘날에도 賤視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痛嘆치 않을 수 없으며, 우리 東洋醫學徒들은 이 학문을 수호하여 繼承 발전시킨 重且大한 임무를 재인식하고 대응단결하여 邁進해야 할 것이다.

이에 東洋醫學의 受難期였던 일제하에서의 敎育제도와 同濟醫學校에 대하여, 설립목적 및 당시의 현황, 특히 亡國의 君主로서 國王이 私財를 내어 同學校를 유지케 하였던 역사적 사실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考察하였다.

II. 本 論

1. 일제침략과 東洋醫學

일본은 1854年 이래 西洋의 新文明을 수입하여 富國強兵策을 세워 國력을 키우더니 당시 세

계적으로 鑿배된 식민주의에 便乘하여 朝鮮을 침공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875년에는 軍艦 雲陽號를 강화도에 침범케 하니 우리는 이를 포격하였다. 일본은 이점을 구실로 하여 1876년에 丙子修好條約을 강행하게 되니 이것이 사실상 일제침략의 시작인 것이며 이때부터 좋은 喜든 外來文明과 아울러 西洋醫學이 導入되게 된다.

이후 日帝는 1877년부터 日本居留民의 健康을 保護한다는 口實下에 各 開港地에 西醫病院을 設置하니 釜山에 濟生醫院, 元山에 生生病院(1880, 後日 共生病院), 仁川에 日本病院(1883), 京城에 日本館醫院(1883), 贊化醫院(1891), 漢城病院, 木浦 및 鎮南浦에 共生病院 等を 開設하였다. 이는 日帝의 醫療政策이었던 西洋醫學 日帝의 政策을 우리나라에도 實施코자 한 것으로 보겠다.

이때의 實情은 어쩔 수 없이 外來文物의 影響을 받아서 1881년에는 行政機構 및 軍制를 開化에 따른 改革을 斷行하게 된다. 그러나 急進的 開化에 反對하는 人士들에 의하여 1882년에는 開化政策에 抵抗하는 壬午軍亂이 일어났다.

그후 改革만이 나라를 再建하는 方法이라고 믿는 改革派 人士들에 依하여 1884년에 急進的 改革을 爲한 甲申政變이 일어나나 失敗에 그치고 나라는 점점 衰退하여가고 말았다.

다시 1899년에는 東學敎徒를 中心으로 反封

建 反帝의 民衆革命運動이 일어났고 이어서 甲午更張이 단행되었으나, 우리 政府의 自主的 改革이 되지 못하고, 日本의 侵略的 武力이 介在되었기에 이 歷史的 大改革이 內包하는 性格은 韓國의 近代化와 이에 隨伴된 日本의 帝國主義的 侵奪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때부터 醫事行政 및 醫育制度가 西洋醫學의 으로 變革이 되게 된다.

1899年 3月에 勅令 第7號로 頒布된 醫學校官制에 의하여 官立醫學校를 設立하고 授業年限 三年으로 學部衙門에서 直轄하게 되니 漸次東洋醫學 抹殺政策이 始作되며, 더욱 같은해 7月에 發表된 學部令 第9號인 醫學校 規則에서 學科目 16個科目을 모두 西洋醫學科目만으로 配定되니 東洋醫學 抹殺政策이 露呈되었다.

1905年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어 이 땅에 日本統監府가 들어와 事實上的 統治權은 日帝下에 있게 되니 醫療行政에서도 日帝의 主管下에 執行되게 된다.

1906年 9月 日本統監 伊藤은 우리 政府에 廣濟院과 醫學校를 統合하여 大韓病院을 開設하고 日本醫師들을 請聘할 것을 強要하였고, 이렇게 하여 1907年 3月에 勅令 第9號로, 大韓醫院官制가 公布되어 伊藤의 提案대로 實施하게 되니, 日帝의 侵略에 依해 數千年 지켜오던 東洋醫學은 法으로 廢棄되고 말았다.

1910年 8月에 不法의 으로 韓國을 合併하고 植民統治를 強行하니 우리 民族文化는 自主的 發展의 機會를 喪失하였다.

2. 同濟醫學校의 設立 및 意義

1876年 丙子修好條約이 強制 締結하면서 實質的으로 日帝侵略이 始作되었음은 이미 言及하였거니와 이때부터의 醫學教育을 살펴보면 1899年에 學部直轄로 官立醫學校를 設立하여 修業年限 3年으로 하였고, 1907年 大韓醫院官制를 頒布할 때에 大韓醫院 教育部라고 改稱하였다가 1910年에 大韓醫院附屬醫學校의 規則을 公布하면서 그 名稱을 醫學科라 하고 그 외에 藥學科와 產婆 및 看護科를 併設하였다.

1906年에 大邱 및 平壤의 同仁醫院에서 醫師 產婆 및 看護婦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醫學講習

所를 신설하였으나 正式 卒業生을 내지 못하고 1910年 韓日合併이 強行된 후에 大邱醫學生들은 大邱慈惠醫院에 引繼하고, 平壤醫學生들은 大韓醫院附屬醫學校로 새로 改編된 醫學講習所에 轉學시켰다.

1899年에 닥터 어비슨의 濟衆院醫學校를 設立하였고, 그후 1904年 濟衆院을 세브란스病院, 濟衆院醫學校를 세브란스醫學校로 改稱하고 1908年에 처음으로 第一回 卒業生을 내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私立 세브란스病院醫學校로서 正식으로 政府認可를 얻었는데 이것이 現 延世大學 醫科大學의 前身인 세브란스醫學校이다.

이와 같이 大韓帝國은 壬午改革에 이어 醫療行政 및 醫學教育의 모든 體制를 西醫學 中心으로 실시하여 東洋醫學의 萎縮이 不可避하였다.

1910年 韓日合併이 강행되면서 醫學教育의 變革을 보면, 大韓醫院附屬醫學校는 大韓醫院의 後身인 朝鮮總督府醫院附屬醫學講習所로 改稱되었고, 1916年에 本 講習所는 폐지되고 4年制 京城醫學專門學校로 昇格하면서 전학생의 三分之一은 日人學生들을 共學시켰다.

세브란스醫學校는 그후 專門學校令에 의하여 4년제 세브란스醫學專門學校로 昇格되고 第2次 世界大戰 末頃に 美國 그리스도教派들의 色彩를 말살하기 위하여 強압적으로 한때 旭醫學專門學校로 그 名칭을 變更하였다.

京城帝國大學 醫學部가 1932年에 授業을 개시하였는데, 豫科 2年, 本科 4年, 合 6年制로 되었으며, 本 醫學部는 日人學生 本位로 設置되어 우리나라 學生數는 겨우 4分の1에 지나지 않았다.

大邱醫學講習所와 大邱醫學專門學校는 1928年에 4년제 醫學專門學校로 昇格되면서 日人學生들과 共學하도록 되었고, 平壤醫學講習所와 平壤醫學專門學校는 1929年에 4년제 醫學專門學校로 昇格되면서 日人學生들과 共學하였다. 美國의 女醫 龔博士가 京城女子醫學講習所를 設置하였는데, 후에 醫師 金學遠과 그 婦人 女醫 言貞姬女史가 引受하여 經營하다 金鍾翊의 寄附로 1938年에 京城女子醫學專門學校로 昇格되었다. 本校는 우리나라 사람의 財力으로 經營해 온 唯

一의 女子醫育機關인대 基礎臨床各科들의 教授 陣은 거의 우리나라 醫學者였다.

1944年 第二次世界大戰이 끝나기 2년전에 光州 및 咸興醫學專門學校가 設置되었으나 겨우 2學年을 모집하였을 뿐이며, 日人과 共學制로 되었다.

1922년에 京城齒科醫學校가 設置되었다가 1929년에 齒科醫學專門學校로 昇格되면서 日人들과 共學하게 되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西洋醫學을 專門으로 하는 醫學校는 設立되어 醫師까지 輩出되었으나 東洋醫學은 그 學問의 輩出口가 封鎖된 채 廢棄의 빛이 역력해졌다.

그러나 數千年間 한 民族의 文化와 함께 發達한 醫學이 결코 法の 廢棄로 一瞬間에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 民族의 東洋醫學愛護心을 土臺로 그 再起의 努力이 東洋醫學界의 뜻있는 人士들에 의해 일어났으니, 醫學校 官制 公布 5年後인 1904年 4월에 전 侍從兼典醫 張容駿, 洪哲普, 典醫補, 金炳觀 등이 現今 醫學校는 西洋醫學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니 다시 漢醫法에 의한 大韓醫學校를 신설하기를 청원하였다.

이렇게 漢醫學校를 申請하게 된 이면에는 종래의 전통에 젖은 高宗께서 내심으로 西醫學보다 東洋醫學에 더 信念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作用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本校는 야주개(現 唐珠洞) 奉常寺 南門골에 있는 內臚寺 宮廬에 정하고 講師로서 都教授 金永勳, 副教授 田光玉 兩氏를 정하였다. 이때 教授選拔試驗에는 五十餘名이 應試하여 一次 面講(醫書講讀), 二次 背講(醫書暗誦), 三次 理講(醫學文理論證)을 거쳐 選拔하였다. 考試官으로는 典醫 洪哲普, 強容駿, 李鶴湜氏를 정하고 面講은 內經(素問 靈樞)과 難經이었고, 背講은 醫學入門 東垣十書 丹溪心法이었다.

그리하여 1905年 4월부터 東洋醫學教育이 시작되었는데 그때의 學生數는 40餘人에 이르렀다. 同濟醫學校가 1年間을 유지하여 오던 중 度

支部로부터 경비가 지출되지 않아 중단되게 되었을 때에 다시 高宗에게 奏請하여 高宗 私用財인 明禮宮의 親用金을 지분하게 되어 3年間이나 더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7年 6月 海牙密使事件으로 高宗이 強制 退位됨에 따라 同濟醫學校도 開校한지 3年만에 結局은 문을 닫고 말았던 것이다. 그후 大韓醫學講習所 또는 講習院으로 개편되어 東醫教育이 실시되었다.

그후 1910年 8月 2日에는 同濟醫學校의 뒤를 이어 衰退해 가는 東洋醫學의 再起와 傳承을 위하여 東西醫學講習所를 만들게 되었는데, 東醫學講師로서 朴準承, 徐丙孝 兩人을, 西醫學講師로 安商浩, 劉秉泌 兩人이었다.

그러나 開講 1個月도 못된 同年 8月 29日에 庚戌合邦이 宣布되었으며 1913年 12月까지 滿3年の 短命으로 끝났다.

以上과 같이 東洋醫學校를 設立도 하고 東醫들의 集團體를 組織도 하여 쇠퇴해 가는 東洋醫學을 復興해 보려고 努力하였으나 時代가 變하고 나라가 亡하는 版局이라 뜻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Ⅲ. 結 論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同濟醫學校가 비록 3年이란 短命으로 外勢에 의해 閉鎖되고 말았지만 數千年 傳統의 民族醫學을 再起해 보려고 努力한 東洋醫學界同志들의 뜻과, 특히 事實上 國權을 喪失한 衰國의 國王으로서 民族醫學再起를 위해 私財를 내놓는 등 協力한 高宗의 精神은 다함께 훗날 民族復興의 精神的 土臺가 되었을 것으로 보아 韓國 東洋醫學史上 큰 意義가 있다고 思料된다. 이울터 保健行政擔當者가 우리 傳統醫學인 東洋醫學이 守護發展될 수 있도록 政策的인 配慮를 要求하며, 또한 우리 東洋醫學研究者는 더욱 많은 努力이 必要할 것이며 傳統醫學의 守護發展에 대한 금지과 義務를 기져야 할 것이다.